

하치

최찬의

나는 행복하고
나는 행복하다

그분이 오셔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슬프고
나는 슬프다

그분이 실종되셔서
나는 슬프고
나는 속상하고
나는 기분 나쁘고
나는 뭐 그렇고

그래도 괜찮다
나는 계속 기다릴거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지나고
이레가 지나고
여드레가 지나고

벌써 아흐레가 지나가도록

그분은

오시지

않으셨다

순간 울고 싶어져서

언젠간 돌아오시겠지
설마 나를 잊어버리시진
않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해봤지만

그분은

오시지

않으셨다

열흘이 지났는데도

그분은

오시지

않으셨다